

2017년 5월 12일, 성산읍 신풍리 신풍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  
강태숙(남, 1937년생, 성산읍 신풍리)

- 줄거리: 정동모자의 줄을 걷으러 갔다가 묶어서 내려올 끈이 없어서 자신이 쓰고 있는 정동모자의 갓(정당벌립)을 뜯어서 그 줄로 묶어서 내려왔다고 한다.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우스개이야기이다.

**[제보자]** 아주 옛날옛 말인디. 드릇밧데. 아, 드릇밧데 아니고, 꼭이라는 거는, 칡 줄 잇잖아이, 막 긴 거. 농기구로. 그걸 만들어서 사용해여. 흐나 분이. 그, 산에 가서 칡 줄을 막 걷어가지고 왔는데. 그 뒷날은 친구가. 아, 나도 가겠다고 허니. 뭘 했느냐 허문. 그, 칡 줄 걷으레 간 게 아니고, 버선, 정동으로 만든 갓. 것 골아갓이엔 허는가, 그걸 만드는 정동줄을 걷으레 갔다 말이야.

정동줄을 걷으레 간에. 영 헷는데. 모자는 정동줄로 만든 모자를 썽 갓어. 경 헌데 할아버지가. 아, 그걸. 다 혜난. 지영 가젠 허연 보니 끄나풀이 엊단 말이야. 아하, 그래서 이젠, 정동줄을 풀어가지고, 이걸로 베 해서 지고 내려가문 뒤겠다.

그걸 풀언 지영 집에 내려왔어. 내려완. 동네 완. 친구들안티 뭐라고 허니. 어, 나는 오늘 드릇밧디 간 정동줄 걷언에 베였는데. 베가 엇이니까 정동 모자. 그걸 끄나풀로 허연 집에 왔다고 허니까.

객체 사람덜이 오죽 웃을 거라게. 아니, 그 정동줄 걷은 걸로. 지고 와도 뒤는데. 그 모자를 틀어가지고 헷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.

그게 머리가 안 돌아가문 할 수 엇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데. 그렇게 뒤는 거.

- 핵심어 : 정동줄, 칡, 모자, 끄나풀, 베, 정동모자, 줄, 사람, 끈, 갓